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2026. 01. 26 I IBKS Research

Insight Monthly 2

2026

반도체	가전·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인터넷/게임/AI	화학/정유
유통·식자재	미디어	엔터	레저	통신	유틸리티
음식료	자동차	2차전지	건설/부동산	조선	제약/바이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1월	2월	3월	
IT/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가전/전자부품				LG전자, 아모텍
IT/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
소재·부품·장비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AI/인터넷/게임				카카오, 더블유게임즈
화학/정유				S-Oil, 롯데케미칼
유통/식자재				신세계, GS피앤엘
엔터				하이브
미디어				스튜디오드래곤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1월	2월	3월	
레저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통신				SK텔레콤, LG유플러스
유틸리티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음식료				KT&G, 롯데웰푸드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건설/부동산				현대건설, 삼성E&A
조선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에스티팜

2월
MP 제안

| 벤치마크 (KOSPI) 대비 |

초과수익 목적 포트폴리오

| 비중 확대 업종 |

IT, 금융, 경기관련소비재

| 비중 축소 업종 |

소재, 유틸리티

WICS 업종 (대,중)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주가 (원)	BM 비중 (%)	MP 비중 (%)	섹터 내 비중 (%)	차이 (MP-BM)
에너지				1.7	0.7	1.00	(1.0)
석유와가스	S-Oil	11,089	98,500	0.3	0.7	1.00	
소재				4.4	3.8	1.00	(0.6)
화학	롯데케미칼	3,294	77,000	0.1	3.3	0.87	
화학	유니드	502	74,200	0.0	0.5	0.13	
산업재				20.5	19.9	1.00	(0.5)
조선	HD현대중공업	64,341	613,000	1.6	13.8	0.69	
조선	삼성중공업	26,488	30,100	0.7	5.7	0.29	
건설	GS건설	1,595	18,640	0.0	0.3	0.02	
건설	한미글로벌	207	18,850	0.0	0.0	0.00	
경기관련소비재				8.7	9.9	1.00	1.2
자동차	현대차	108,317	529,000	2.7	7.1	0.72	
자동차부품	현대모비스	41,147	453,500	1.0	2.7	0.27	
백화점과일반상점	호텔신라	1,790	45,600	0.0	0.1	0.01	
필수소비재				1.4	2.4	1.00	0.9
담배	KT&G	16,989	144,000	0.4	1.7	0.71	
식품	농심	2,494	410,000	0.1	0.2	0.10	
식품	오리온	4,570	115,600	0.1	0.4	0.19	
건강관리				5.1	4.9	1.00	(0.1)
제약	한미약품	5,515	430,500	0.1	3.3	0.66	
제약	에스티팜	2,486	120,100	0.1	1.5	0.30	
건강관리장비와용품	제이브이엠	308	25,450	0.0	0.2	0.04	
금융				9.1	9.9	1.00	0.7
은행	KB금융	51,383	134,700	1.3	5.8	0.59	
증권	메리츠금융지주	18,819	107,400	0.5	2.1	0.22	
증권	미래에셋증권	16,928	29,850	0.4	1.9	0.19	
IT				44.0	44.5	1.00	0.5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삼성전자	901,561	152,300	22.7	25.4	0.57	
반도체와반도체장비	SK하이닉스	549,642	755,000	13.8	15.5	0.35	
전기제품	LG에너지솔루션	97,578	417,000	2.5	2.7	0.06	
전자제품	LG전자	17,299	106,200	0.4	0.5	0.01	
디스플레이패널	LG디스플레이	6,330	12,660	0.2	0.2	0.00	
전자장비와기기	LG이노텍	6,698	283,000	0.2	0.2	0.00	
커뮤니케이션서비스				3.6	3.5	1.00	(0.1)
양방향미디어와서비스	NAVER	38,507	245,500	1.0	2.1	0.59	
무선통신서비스	LG유플러스	6,611	15,380	0.2	0.4	0.10	
방송과엔터테인먼트	하이브	15,739	368,500	0.4	0.8	0.24	
게임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4,923	228,500	0.1	0.3	0.07	
유틸리티				1.5	0.5	1.00	(1.0)
전기유틸리티	한국전력	42,370	66,000	1.1	0.5	0.94	
전기유틸리티	한전KPS	2,601	57,800	0.1	0.0	0.06	

1월
MP 결과

I 포트폴리오 수익률 내역 I

MP 합계: +20.24%

코스피 : +17.52%

시장 대비 수익률: +2.72%p

WICS 업종 (대,중)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1M 주가 수익률 (%)	BM 비중(%)	MP 비중(%)	섹터 비중 (%)	차이(MP-BM)
에너지			-1.4	1.8	0.8	1.00	(1.0)
석유와가스	S-Oil	9,344	9.5	0.3	0.8	1.00	
소재			-1.5	4.6	3.9	1.00	(0.6)
화학	롯데케미칼	3,007	2.6	0.1	3.4	0.87	
전기제품	유니드	455	6.1	0.0	0.5	0.13	
산업재			4.3	20.1	19.7	1.00	(0.5)
조선	HD현대중공업	53,425	-0.4	1.6	13.7	0.70	
조선	삼성중공업	21,208	2.2	0.6	5.4	0.28	
건설	GS건설	1,686	3.0	0.0	0.4	0.02	
건설	한미글로벌	197	-1.0	0.0	0.1	0.00	
경기관련소비재			6.2	7.8	9.0	1.00	1.1
자동차	현대차	60,711	9.8	1.8	5.7	0.63	
자동차부품	현대모비스	33,843	17.3	1.0	3.2	0.35	
백화점과일반상점	호텔신라	1,750	-1.1	0.1	0.2	0.02	
필수소비재			-1.9	1.7	2.6	1.00	0.9
담배	KT&G	16,764	0.0	0.5	1.8	0.71	
식품	농심	2,631	-3.0	0.1	0.3	0.11	
식품	오리온	4,179	0.5	0.1	0.5	0.18	
건강관리			1.9	5.8	5.6	1.00	(0.1)
제약	한미약품	5,791	-3.6	0.2	3.8	0.68	
제약	에스티팜	2,468	6.8	0.1	1.6	0.29	
건강관리장비와용품	제이브이엠	313	-0.4	0.0	0.2	0.04	
금융			2.3	10.2	10.9	1.00	0.7
은행	KB금융	47,568	1.0	1.4	6.4	0.59	
증권	메리츠금융지주	19,818	0.8	0.6	2.7	0.25	
증권	미래에셋증권	13,241	9.4	0.4	1.8	0.16	
IT			9.0	42.5	43.1	1.00	0.6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삼성전자	709,765	10.9	21.0	23.6	0.55	
반도체와반도체장비	SK하이닉스	473,930	10.2	14.0	15.8	0.37	
전기제품	LG에너지솔루션	86,229	-4.9	2.6	2.9	0.07	
전자장비와기기	LG전자	14,969	8.3	0.4	0.5	0.01	
디스플레이패널	LG디스플레이	5,905	-4.9	0.2	0.2	0.00	
핸드셋	LG이노텍	6,414	15.8	0.2	0.2	0.00	
커뮤니케이션서비스			-0.3	4.1	4.0	1.00	(0.1)
양방향미디어와서비스	NAVER	38,037	-2.9	1.1	2.4	0.61	
다각화된통신서비스	LG유플러스	6,327	2.4	0.2	0.4	0.10	
방송과엔터테인먼트	하이브	14,048	8.3	0.4	0.9	0.22	
게임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4,341	-4.8	0.1	0.3	0.07	
유틸리티			-5.7	1.4	0.3	1.00	(1.0)
전기유틸리티	한국전력	30,301	-7.9	0.9	0.3	0.93	
전기유틸리티	한전KPS	2,225	-0.9	0.1	0.0	0.07	
포트폴리오			5.3	100	100		
코스피			4.9				

1월 MP 성과분석

- MP선정기준: 계량, 기업분석 담당 정량/정성적 의견 종합 섹터, 종목 비중 결정, 2026년 1월 코스피 대비 2.72%p 아웃퍼폼
- 삼성전자 중심 반도체 모멘텀 지속, CES 아틀라스 시연 이후 피지컬 AI 기대감 반영(삼성전자 +27.0%, 현대차 +78.4%)
- 견조한 반도체 수출(1/1~1/20 YoY, +70%)로 실적 기대감 지속된 가운데 방산, 조선 등 실적 중심 성장주 동반 강세
- 코스피 전반 실적 상승 기대감 유효한 가운데 차기 연준의장 지정 후 미 금리인하 기대감에 성장주 중심 강세 지속 전망

코스피 +4.86%

포트폴리오 +5.28%

초과 수익률 +0.42%

섹터 효과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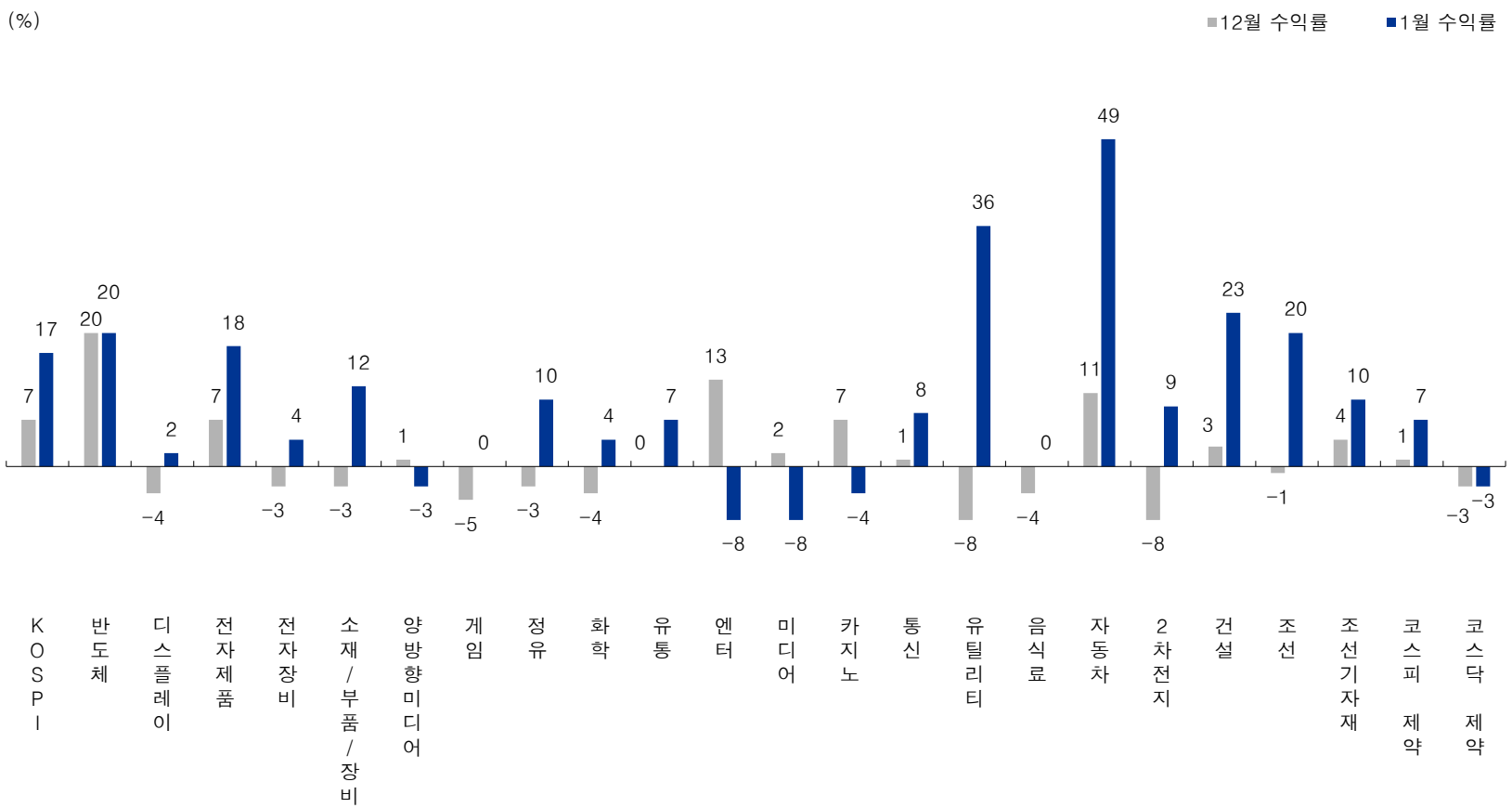
종목선택효과 -0.03%

포트폴리오 성과 분석

	섹터 자체알파 (B, %)	섹터 비중 조절 효과 (C, %)	종목선택효과 (D, %)	섹터 알파 기여도 (A=B+C, %)	섹터, 종목 선택 효과 합계 (E=D+A)	지수 대비 섹터 수익률	섹터 비중 조절
에너지	-0.13	-0.11	0.07	-0.24	-0.17	Under	Down
소재	-0.21	-0.08	-0.12	-0.29	-0.42	Under	Down
산업재	0.36	-0.09	0.34	0.27	0.61	Out	Down
경기관련소비재	1.20	0.38	2.17	1.58	3.75	Out	Up
필수소비재	-0.27	0.01	0.03	-0.26	-0.24	Under	Up
건강관리	-0.74	-0.01	-0.44	-0.74	-1.18	Under	Down
금융	-1.22	0.04	0.28	-1.18	-0.90	Under	Up
IT	1.93	0.13	-0.14	2.06	1.92	Out	Up
커뮤니케이션서비스	-0.62	0.00	0.09	-0.62	-0.53	Under	Down
유틸리티	0.22	-0.34	0.02	-0.12	-0.11	Out	Down
합계	0.52	-0.08	2.28	0.45	-	-	-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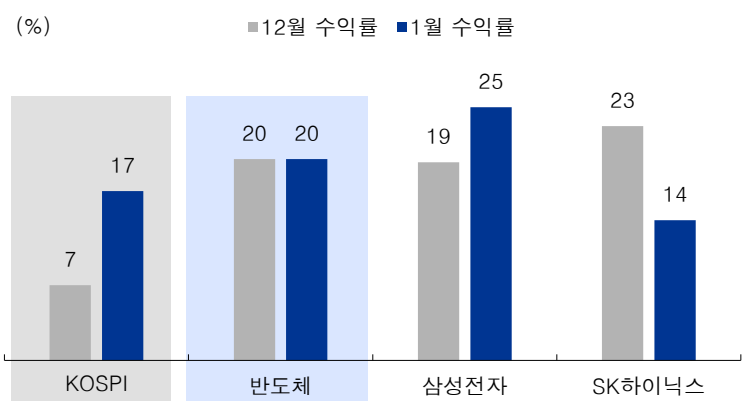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IT/반도체

1월 성과 분석

- 1월 반도체 업종지수는 19.6%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3.1%p 상회함
-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반영. HDD 공급 부족에 따른 나비효과로 SSD까지 수요 확대. QLC 수요 큰 폭으로 개선
- DRAM도 서버메이커들의 투자 규모 확대가 확산됨에 따라 가격 반등 기대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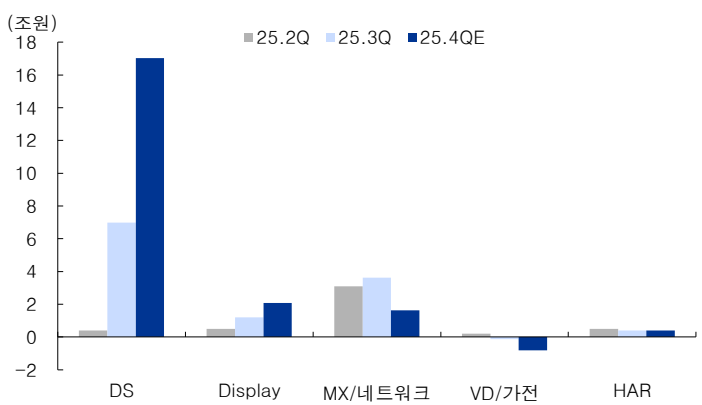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삼성전자 25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 매출액은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
- 예상치 소폭 하회. 성과급 비용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
- 메모리가 이익 개선 주도
- 소비재인 MX, 가전/VD 부진. 원자재 비용 상승 및 소비 부진 영향
- 메모리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삼성전자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Dart, IBK투자증권

IT/반도체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1월 2월 3월

- 1월 메모리 업황은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 AI 서버 수요 확대로 Conventional DRAM 가격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
- NAND 역시 수급은 빠듯하게 흘러갈 것으로 기대. ASP 상승세 지속될 것
- 26년 HBM4 품질 테스트는 1분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 메모리업체들의 4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상향 조정
- 메모리 중심 포트폴리오 유지

2월 Top Picks

삼성전자

- 25년 4분기 잠정 매출액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
- DS 사업부 영업이익 큰 폭으로 개선
- 메모리 이익 상향. 가격 이전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
- 모바일은 원가 부담으로 이익률 하락
- 가전/VD는 영업적자 전환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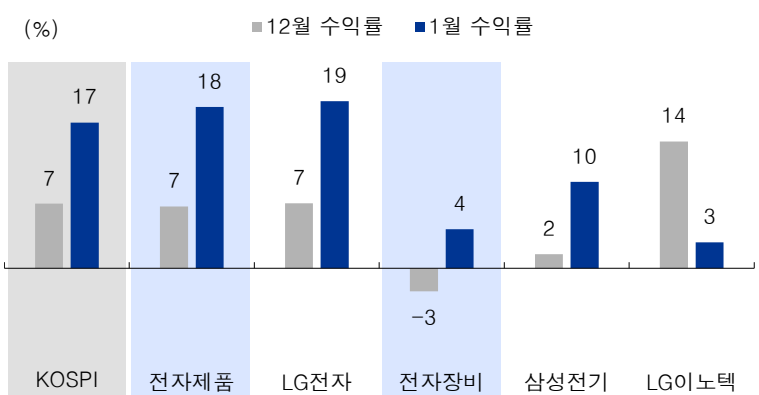
- 25년 4분기 매출액 31.7조원, 영업이익 18조원으로 예상
- DRAM, NAND 모두 이전 전망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
- NAND는 가격 상승으로 재평손 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이전 전망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가능할 것

[IT/반도체/가전/전자부품] 김운호

IT/가전/전자부품

1월 성과 분석

- 1월 전자제품 업종지수는 18.3%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7%p 상회함
- 1월 전자장비 업종지수는 4.4%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2.1%p 하회함
- 전자부품은 삼성전기, LG이노텍 상승이 견인. AI 수요가 MLCC로 확산. Apple 신제품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보도로 LG이노텍 상승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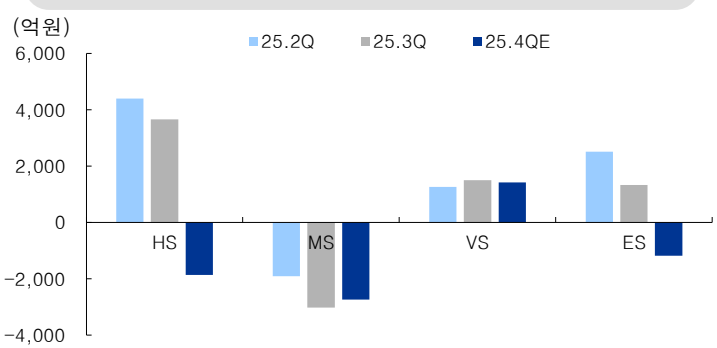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LG전자 잠정실적 발표

- 25년 4분기 매출액 23.8조원, 영업이익 -1,094억원
- LG이노텍 제외 매출액은 16.2조원, 영업이익 -4,400억원 수준으로 추정
- 일회성 비용 발생한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
- HS, MS, ES 모두 영업적자
- VS는 예상치 상회한 5%대 영업이익률

LG전자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Dart, IBK투자증권

IT/가전/전자부품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1월 2월 3월

- 2월 전자부품 업황은 개선. 모바일, 서버 관련 부품업체들 실적 개선될 전망. 다만 모바일은 물량이 지난 해 대비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
- 가전도 성수기 진입. 25년 진행된 구조조정 효과 본격화될 것
- 삼성전자 벤더들 신제품 효과 기대. 주력 제품에 따라 실적은 차별화될 것
-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한 업체에 투자

2월 Top Picks

LG전자

- 2026년 1분기 계절성 준비
- 2025년 일회성 비용 집행으로 비용 구조 개선 효과 기대
- AI 관련 노출도가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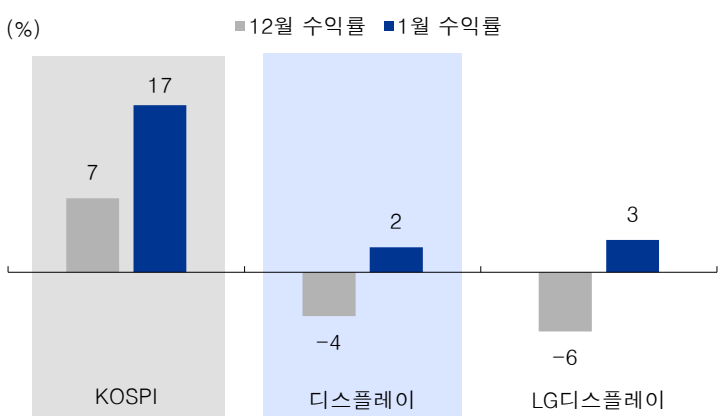
아모텍

- MLCC 가 성장 동력
- 전장에서 AI로 사업 영역 확대
- AI 주력 제품은 광 네트워크
- 광 스위치 칩을 생산하는 Marvell이 대표 고객. 추후 Amphenol로 확장 계획
- GPU는 AMD 관련 제품 개발 중
- 전장도 국내 고객 비중이 확대될 전망

IT/디스플레이

1월 성과 분석

- 1월 디스플레이 업종 지수는 2.5%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4.0%p 하회
- 디스플레이 업종은 비성수기에 접어들며, 코스피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
- 삼성디스플레이의 8.6G OLED 양산 및 LG디스플레이 상반기 턴어라운드 등 긍정적인 소식이 상존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BOE, iPhone 向 OLED 납품 지연 지속

- BOE의 iPhone向 OLED 품질 이슈가 지속되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수백만대 수준의 물량이 이관
- iPhone 17향 LTPO OLED뿐만 아니라 기납품 제품인 iPhone 15, 16향 패널에서도 품질 이슈가 발생
- 2026년, iPhone 18 시리즈에는 LTPO+ 기술이 적용된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짐. LTPO, LTPS에서 연이은 품질 문제가 붉어지며 BOE의 고객사 내 비중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국내 패널사들의 반사 수혜 기대

IT/디스플레이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 갤럭시 S26 시리즈, 3/11 출시 전망. S26 일반형 모델은 전작 대비 0.11인치 큰 패널이 탑재될 예정. 갤럭시 시리즈의 노출도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밸류체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
- LG디스플레이의 상반기 영업 흑자 전망. 덕산네오룩스 연중 블랙 PDL 적용 제품군 확대, 선익시스템 BOE Phase2 수주 등 긍정적인 모멘텀 다수 존재
- 다만,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인한 Set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 Notebook, Smartphone 등 어플리케이션 판매 추이 지켜볼 필요

1월 Top Picks

LG디스플레이

-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LCD 사업부 매각으로 상반기 영업흑자 기대감 고조
- 북미 고객사 내 경쟁에서 OLED 기술력 기반으로 견조한 점유율 기록할 것으로 전망
- 1Q26 매출액 6.1조원(YoY, +0.5%), 영업이익 1,090억원(YoY, +226.5%)으로 영업 흑자 추정

덕산네오룩스

- 2026년 증익 기대 요소는 크게 4가지

1) 부진한 리지드 패널을 대신할 중저가형 플렉서블 패널 출시에 따른 중국 수요 개선

2) 블랙 PDL 적용 제품 확대를 통한 마진률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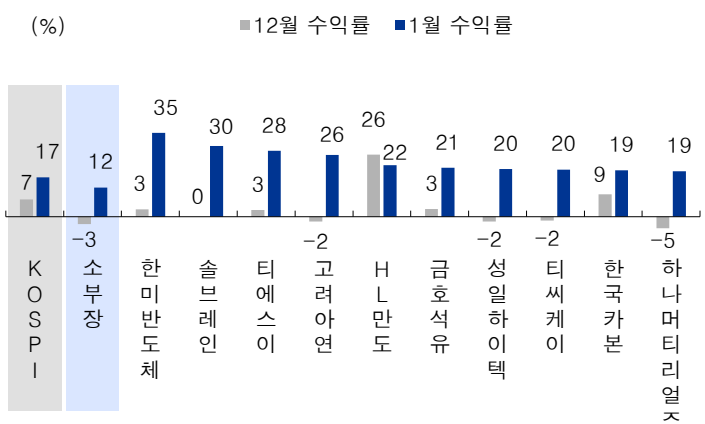
3) 북미 모바일 고객사 내 점유율 및 제품 믹스 개선

4) 상반기부터 IT OLED 본격 가동에 따른 실적 개선

소재 · 부품 · 장비

1월 성과 분석

- 1월 소부장 섹터는 12.2%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4.3%p 하회함
- 코스피의 상승률이 더 강하긴 했지만 전방 기업들의 상승 흐름에 맞춰 소부장 섹터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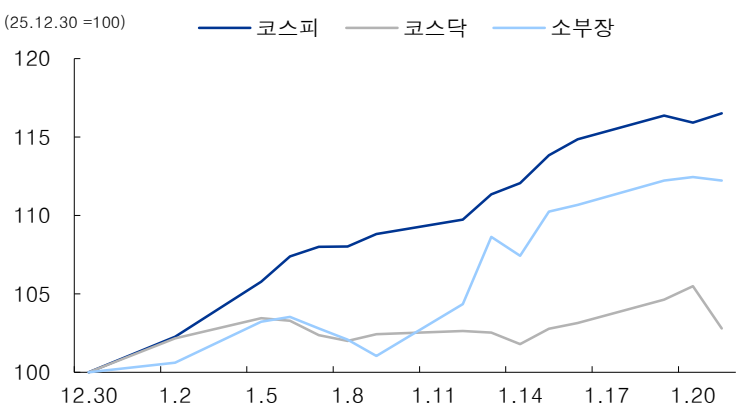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반도체 섹터의 선별적 상승에 주목

- 2025년 하반기와 같은 섹터 전반의 상승보단 이슈에 맞는 선별적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
- 이러한 선별적 상승은 섹터의 1차 상승이 끝나고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소재 · 부품 · 장비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 2월은 1월 효과가 지속되며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업은 소재, 부품 기업이고 장비는 유틸리티와 전공정 기업들 위주의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로봇, 우주항공은 미국 시장의 글로벌 리딩 기업들에 주목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함

2월 Top Picks

한솔케미칼

- 2026년은 반도체와 2차전지 부문 모두에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삼성전자 P4, SK하이닉스 M15X) 효과로 과산화수소 출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프리커서 역시 선단 공정(2/3nm 중심) 확대와 가동률 상승으로 고성장 예상
- 2차전지용 바인더 소재는 ESS향 중국 고객사 물량이 본격 반영되어 외형성장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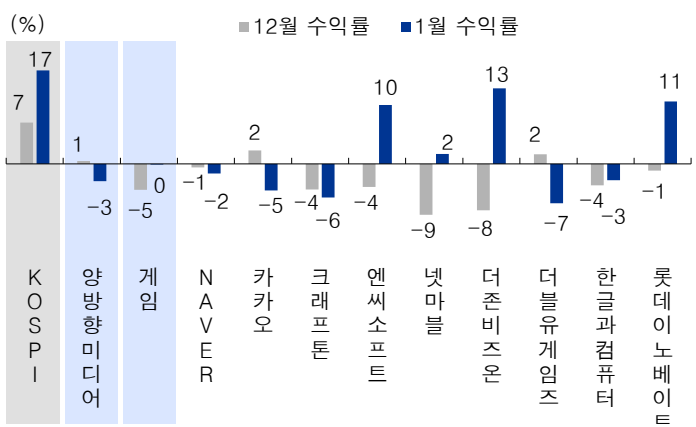
솔브레인

- HBM4 양산과 NAND 수요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에 따라 식각액 공급 증가 예상. NAND 고단화(V8, V9) 전환 투자로 식각액 소모량 확대 기대
- 2nm GAA 공정 램프업(삼성 파운드리)에 따른 초산계 식각액 수요 점진적 확대 예상

AI/인터넷/게임

1월 성과 분석

- 1월 기준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3.0% 기록하며 코스피 대비 -19.5%p 하회했고, 게임 지수는 -0.1%를 기록하여 코스피 대비 -16.6%p 하회함
- 양방향 미디어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지수 대형 종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
- 게임 업종은 신작 모멘텀에 따라 주가 차별화. 엔씨소프트, 펄어비스가 신작의 흥행/출시일 확정으로 강세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국가대표 AI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 완료

- 정부의 '국가대표 AI 모델 프로젝트'의 1차 평가 결과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팀이 탈락
- NC AI는 정량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탈락하였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탈락
- 1차 평가에서 2개의 탈락팀이 발생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예팀 1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

5개 정예팀 주요 성과 및 특징

정예팀	주요 성과
네이버클라우드	텍스트 · 이미지 · 음성을 동시 이해하는 옴니모달, 전 국민 AI 서비스 플랫폼 운영 목표
업스테이지	매개변수 1,000억개, 비교적 적은 매개변수로 대규모 모델 수준 성능 구현
SK텔레콤	매개변수 5,190억개 규모 초거대 AI 모델 개발, 최대규모 도전
NC AI	게임, 제조,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된 버티컬 AI 모델 구현
LG AI연구원	매개변수 2,360억개, 다양한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BK투자증권

AI/인터넷/게임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 1월 반도체, 자동차 등 지수 내 대형 종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인 매력도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악화
- NAVER는 국가대표 AI 1차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시장에서 동사의 AI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부각. 이에 AI 관련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게임사는 넷마블의 신작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출시 이후 흥행도가 중요함. 대형 게임사들의 기대 신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업종 상승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
- Top picks는 카카오와 더블유게임즈를 제시

2월 Top Picks

카카오

- 2026년은 작년부터 강조했던 AI와 카카오톡의 시너지가 가시화되는 시기로 전망함
- 카카오톡의 트래픽 상승과 함께 광고 상품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도 기대됨
- 향후 로보택시 시장이 부각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치가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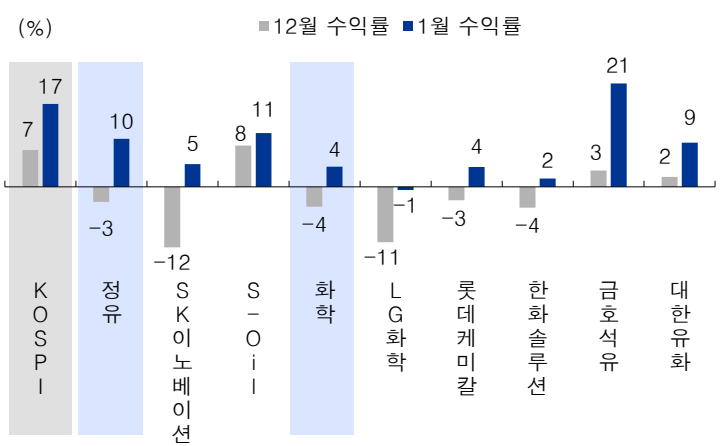
더블유게임즈

- 최근 진행했던 M&A의 성과가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외형 성장이 기대됨
- 견고한 소셜카지노 안정적인 매출성장과 i-Gaming과 캐주얼 게임의 가파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풍부한 현금성자산이 M&A와 주주환원으로 전환되면서 리레이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함

화학/정유

1월 성과 분석

- 1월 정유 업종지수는 +9.5%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7.0%p 하회. 다만 작년 세계 정제설비 폐쇄 확대 등으로 인한 등/경유 위주의 마진 개선으로 작년 대비 주가 반등
- 1월 화학 업종지수는 +4.0%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2.5%p 하회.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가 감소하였고, 국내 화학 설비의 구조 개편 움직임으로 인한 수혜 발생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석유화학단지 3곳 구조개편 윤곽

- 작년말 여수/대산 석유화학 업체들은 산업부에 사업재편안 제출 마무리. NCC 270만~370만톤 감축 목표, 계획 이행 시 달성 가능 전망
- 정부는 석화 사업재편에 호응하며, 올해 1분기부터 대규모 R&D 추진할 계획.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개발 확대 전망

중국 노후화 화학 설비 구조조정 움직임

- 중국은 과잉 화학 생산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구조조정 추진 중. 정부 주도로 노후/저효율 설비를 폐쇄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고, 소규모 시설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
- 폴리실리콘/유기실리콘/스판덱스 등에서 공급 축소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선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올해 3월 중국 양회에서 추가적인 구조조정 움직임 예상

화학/정유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 2월 화학 업종은 국내/유럽/중국의 설비 폐쇄 등으로 점진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전망. 업황의 드라마틱한 개선 여부 보다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절감과 정부 지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이 주가에 촉매가 될 전망.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이 발생 시 단기적으로 가격/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2월 정유 업종은 일부 CDU 증설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및 CAPEX 부담 확대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며 작년에 이어 수급 타이트 현상이 지속될 전망. 특히 러시아 석유제품 공급 차질은 부품/기술 수입 차단으로 올해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2월 Top Picks

S-Oil

- 총 9.3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는 올해 6월 기계적 완공 및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TC2C 공정을 도입하여 기존 공정 대비 화학 원료 수율을 3~4배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20~30% 절감할 것으로 예상. 또한 기존 정유시설의 증질유 및 부산물을 보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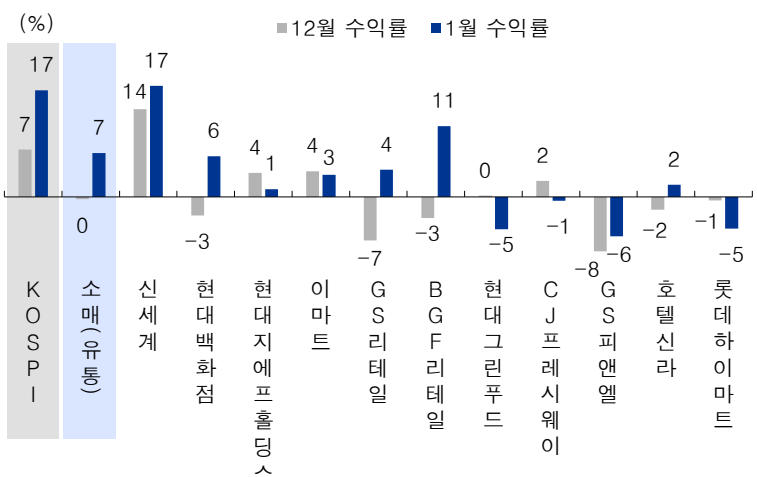
롯데케미칼

- 롯데케미칼은 작년에 정부의 석화 사업재편 방침에 따라 대산 공장을 물적분할하여 분할회사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제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및 세제혜택이 예상되며, 여신한도 상향, 신용평가 항목에 대한 웨이버 등 금융 인센티브에 대하여 산자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

유통 · 식자재

1월 성과 분석

- 1월 유통 업종 지수는 6.8% 상승했으며 코스피 수익률을 -9.7%p 하회
- 백화점 업종 등 성장세가 나오는 업종 위주로 상승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종목에서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함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대형마트 2개 사업자로 재편

- 2025년 12월 홈플러스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 회생안에는 30% 가량의 할인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12월 5개, 1월 5개, 2월 7개 점포의 폐점이 발표되어, 2026년 2월 말 홈플러스 점포수는 105개로 감소
- 이에 기존 2위 사업자였던 홈플러스는, 1위 이마트, 2위 롯데마트에 이어 3위로 밀려나며, 상품력 약화, 매입력 감소 등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일본-중국 갈등 지속, 방한 수요 증가 기대

- 2025년 12월 대만 관련 발언을 촉발된 일본과 중국의 갈등으로 일본 관광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실제로 12월 방일 중국인 관광객은 33.0만명(YoY -45.3%, MoM -41.3%)으로 대폭 감소한 모습
- 기존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던 여행수요가 일정부분 한국으로 전환되면서 2026년 방한 외국인 수요 증가폭은 확대 전망

유통 · 식자재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 2026년 유통업종은 상고하저(上高下低) 전망
- 긍정요인: 2026년부터 정부지출 확대 사이클 진입, 정부 예산안은 2025년 673조 원(YoY +2.5%)에서 2026년 728조 원(YoY +8.1%)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
- 긍정요인: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 확대는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 이에 다른 호텔숙박, 소비 등 외국인 지출 확대
- 부정요인: 정부예산지출 증가에도, 2025년 하반기 소비쿠폰 지급 및 추경에 따른 기고 효과로 26년 하반기 예산 증가 효과는 둔화 전망
- 부정요인: 원화 약세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수입물가 상승 전망. 한은에 따르면 연말 고환율이 내년까지 지속 시, 2026년 물가상승률은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

2월 Top Picks

신세계

- 2025년 4분기, 기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예상, 4분기 기존점성장률 +10% 수준 전망. 1) 해외 명품수요 속, 2) 방한 외국인 수요 확대, 3) 본점 리뉴얼에 따른 집객력 상승
- 2026년 영업이익 5,521억 원(YoY +18.3%) 전망. 1) 신세계 면세점 DF2 철수 효과, 2) 방한 외국인 수요에 따른 센트럴 호텔 사업부 성장, 3) SI와 신세계까사 사업부 재편 효과, 4) 우호적인 백화점 영업환경 등

GS피앤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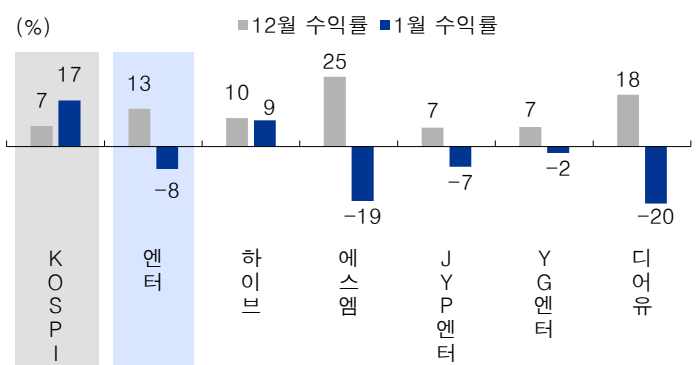
- 2025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497억 원, 영업이익 262억 원으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전망. 2026년부터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영업실적이 온기 반영되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와 호텔 공급부족 심화에 따라 역대 최대실적 경신 지속 기대
- 2026년 매출액 6,456억 원(YoY +35.7%), 영업이익 1,137억 원(YoY +57.9%) 전망
- 중국-일본 간의 갈등으로 양국간의 관광수요 중 일부가 흡수되며 서울 지역 관광수요 확대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관광수요 확대도 기대

[유통 · 식자재/지주] 남성현

엔터

1월 성과 분석

- 1월 엔터 업종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은 -8.0%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4.5%p 하회
- 작년 12월 연초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 관련 협의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두자리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실제 회담에서 기대했던 결과 부재로 1월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
- 하이브는 1/14 예상보다 큰 규모의 BTS 월드투어 일정 발표로 업종내 유일하게 (+) 수익률 시현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BTS 월드투어 발표: 23개국, 35개 도시, 79회차

- 2026년 1월 14일 0시 BTS 월드투어 1차 일정 공개
- 2026년 4월 9일 고양 스타디움 3회차 공연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총 23개국, 35개 도시, 79회차 공연
- 2026년 350만명, 총 투어 기준 약 450만명 이상 모객 전망
- 기존 예상했던 모객 추정치(300~360만, 65회)를 크게 상회했으며, ATP와 스폰서쉽 매출도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

BTS WORLD TOUR

2026.04.09,11-12	GOYANG
2026.04.17-18	TOKYO
2026.04.25-26	TAMPA
2026.05.02-03	EL PASO
2026.05.07,09-10	MEXICO CITY
2026.05.16-17	STANFORD
2026.05.23-24,27	LAS VEGAS
2026.06.12-13	BUSAN
2026.06.26-27	MADRID
2026.07.01-02	BRUSSELS
2026.07.06-07	LONDON
2026.07.11-12	MUNICH
2026.07.17-18	PARIS
2026.08.01-02	EAST RUTHERFORD
2026.08.05-06	FOXBOROUGH
2026.08.10-11	BALTIMORE
2026.08.15-16	ARLINGTON
2026.08.22-23	TORONTO
2026.08.27-28	CHICAGO
2026.09.01-02,05-06	LOS ANGELES
2026.10.02-03	BOGOTA
2026.10.09-10	LIMA
2026.10.16-17	SANTIAGO
2026.10.23-24	BUENOS AIRES
2026.10.28,30-31	SÃO PAULO
2026.11.19,21-22	KAOHSIUNG
2026.12.03,05-06	BANGKOK
2026.12.12-13	KUALA LUMPUR
2026.12.17,19-20,22	SINGAPORE
2026.12.26-27	JAKARTA
2027.02.12-13	MELBOURNE
2027.02.20-21	SYDNEY
2027.03.04,06-07	HONG KONG
2027.03.13-14	MANILA

MORE CITIES TO BE ANNOUNCED
2027 JAPAN, MIDDLE EAST & MORE

자료: 하이브, IBK투자증권

[미디어/엔터/레저] 김유혁

엔터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 2월 엔터업종 주가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2월 엔터사 4Q25 실적 발표 예정. 당사 커버리지 5개사 중 디어유만 컨센서스 상회, 나머지 엔터 4사(HYBE, SM, JYP, YG)는 모두 컨센서스 하회 예상
- 4Q25 MD 부문은 시즌스그리팅 효과로 성장하겠으나, 앨범과 공연 매출이 비수기 영향으로 부진 예상
- 다만, 블랙핑크 앨범 발매(2/27), 베이비몬스터 컴백일정 및 월드투어 발표(예상), BTS 컴백 관련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업종 투자심리 개선을 견인할 전망
- 최선호주 하이브(매수, 42만원) 유지

2월 Top Picks

하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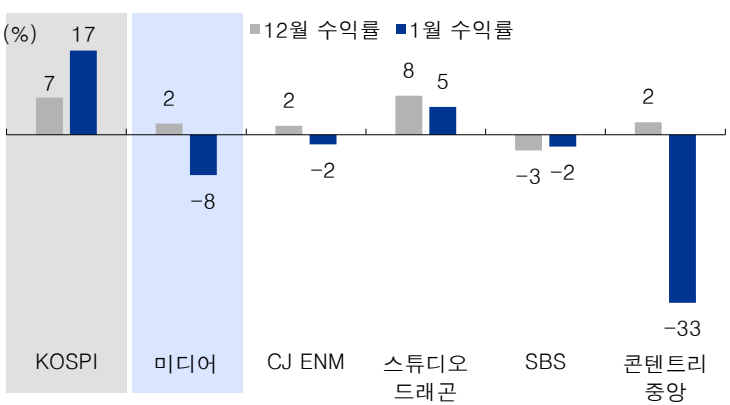
- 4분기 영업이익은 36억원(-94.5% YoY, 흑전 QoQ, OPM 0.5%)로 시장기대치 하회 추정. 음반원 매출은 600만장의 판매량이 반영되며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추정, 공연매출은 123만명의 모객실적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 예상
- 반면 콘텐츠 매출은 시즌스그리팅, 지민x정국 디즈니+ 출연료, 10월 출시한 아키텍트 매출이 반영되며 YoY, QoQ 모두 개선 추정
- 다만, 북미법인 구조개편 잔여비용, Santos Bravos 투자비와 아키텍트 마케팅비가 기존 예상보다 크게 반영된 점이 영업이익 부진을 예상하는 주 요인
- 다만, BTS 월드투어 실적이 모객, ATP, 스폰서쉽 등이 모두 현재 시장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2만원 유지

[미디어/엔터/레저] 김유혁

미디어

1월 성과 분석

- 1월 미디어 업종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은 -7.9%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4.4%p 하회
- 스튜디오드래곤은 +5.5%, CJ ENM/SBS는 약 2% 수준의 약세를 보였지만, 콘텐트리중앙이 33.0%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평균 수익률 하락을 견인
- 콘텐트리중앙의 주가 하락은 최근 현금흐름 및 자금조달 이슈에 따른 우려 확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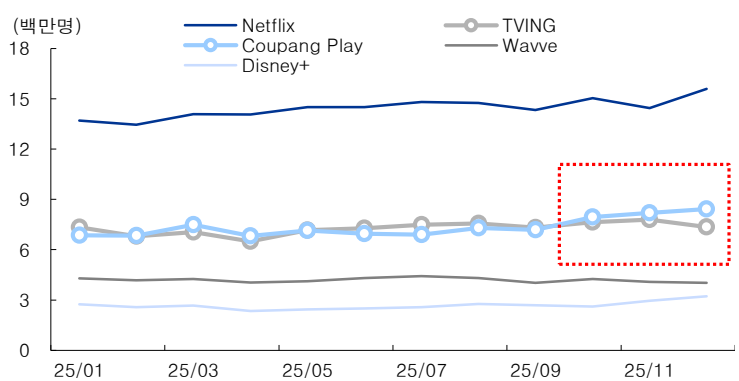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2025년 주요 OTT, 2위 사업자 순위 변동

-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주요 OTT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기준 2위권 순위 변동
- 티빙과 쿠팡플레이는 연중 유사한 수준의 MAU를 유지했으나, 10월부터 쿠팡플레이 MAU 상승하며, 연말기준 티빙 대비 약 100만명 앞서며 안정적인 2위 사업자 등극
- 티빙은 KBO 시즌 종료로 MAU가 감소한 가운데, 쿠팡플레이는 가을에 시즌을 시작하는 유럽 4대 축구리그를 모두 중계하며 MAU 확대 시현



자료: 모바일인덱스, IBK투자증권

미디어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1월 2월 3월

- 2월 미디어 업종 관전포인트는 4Q25 실적 발표
- 스튜디오드래곤, 콘텐트리중앙 등 제작사의 경우 4Q25 편성확대, 오리지널 딜리버리, 리큐율 확대 등으로 양호한 실적 예상
- SBS는 4분기에도 방송광고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자회사 스튜디오S의 선판매 확대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아쉬운 점
- CJ ENM도 방송광고 업황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영화/드라마, 음악, 커머스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기대치 부합 예상
- 최선호주 스튜디오드래곤

2월 Top Picks

스튜디오드래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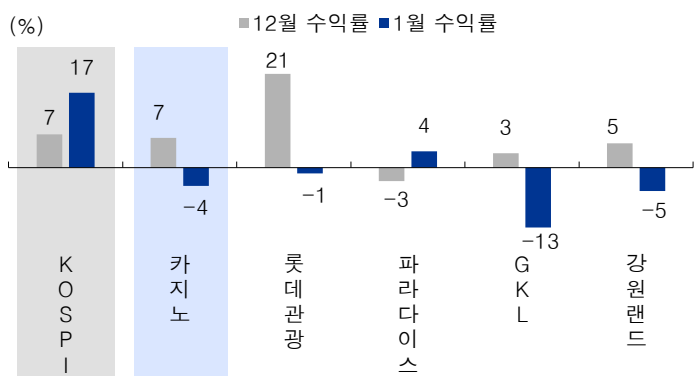
- 4Q25 매출액은 1,765억원(+35.2% YoY, +29.3% QoQ), 영업이익 188억원(+248.9% YoY, +78.4% QoQ, OPM 10.6%)으로 추정
- 친애하는X, 태풍상사, 얄미운 사랑, 프로보노, 신사장 프로젝트 일부 등 66회차 실적 반영 예상. 신사장 프로젝트 제외하고 모두 선판매가 완료된 작품이라는 점도 긍정적
- TVING이 Warner Bros의 HBO Max(동남아 지역), 일본 Disney+에 티빙 브랜드관 형태로 진출하면서 4Q25 동사의 구작판매 매출이 발생한 점이 실적개선 요인
- 1Q26 우주를 줄게, 세이렌, 언더커버, 건물주, 은애하는 도적님아, 유미의 세포들3 등 82회차 실적 반영 예상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3,000원 유지

[미디어/엔터/레저] 김유혁

레저

1월 성과 분석

- 1월 카지노 업종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은 -4.0%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0.5%p 하회
- 롯데관광개발은 보합, 파라다이스는 +3.6% 수준의 수익률을 시현했으나 GKL과 강원랜드 주가가 약세를 보이며 전체 커버리지 평균 수익률 하락을 견인
- GKL과 강원랜드는 4Q25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되는 점이 주가 약세의 요인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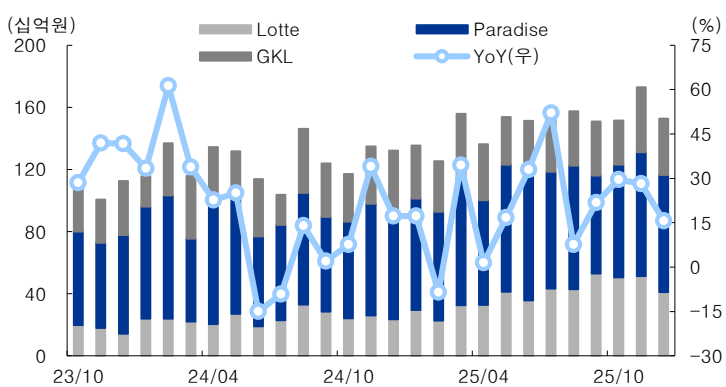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12월 카지노 3사 매출 1,527억원(+15.6% YoY)

- 12월 카지노 3사 합산 매출 1,527억원(+15.6% YoY, -11.7% MoM), 드랍액 1.12조원(+19.1% YoY, -3.0% MoM)
- 12월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성장세 지속.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인바운드 성장의 수혜 효과로 판단
- 회사별로는 롯데관광개발 1,428억원(+93.3% YoY), 파라다이스 2,278억원(+11.8% YoY), GKL 1,066억원(+0.3% YoY)



자료: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IBK투자증권

레저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1월 2월 3월

- 2월 카지노 업황 전망도 긍정적
- 카지노 3사 모두 외국인 인바운드의 구조적 성장 수혜로 Mass 중심의 드랍액 상승이 확인되고 있는데, 2월에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도 12월을 바닥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월초 발표되는 카지노 업종 주요 지표는 MoM 반등하며 투자심리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4Q25 실적은 롯데관광개발 컨센서스 상회, 파라다이스/GKL 하회 예상
- 업종 최선호주 롯데관광개발 유지

2월 Top Picks

롯데관광개발

- 4Q25 매출액 1,897억원(+72.4% YoY, +1.6% QoQ), 영업이익 487억원(+2,148.6% YoY, -8.1% QoQ, OPM 25.7%)으로 시장기대치(478억원) 소폭 상회 추정
- 2026년 영업이익 2,112억원(+42.9% YoY) 전망. 1) 중/일 항공편 확대, 2) 객실 콤프 증가에 따른 VIP 모객 성장으로 테이블 가동률 상승하며 실적개선 전망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2,000원 유지

파라다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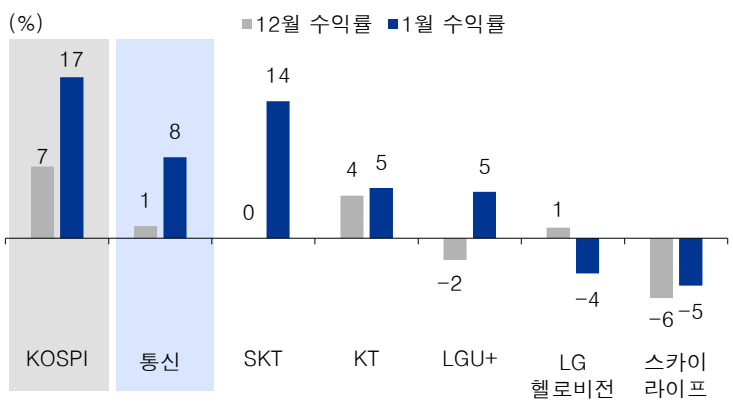
- 4Q25 매출액 2,907억원(+9.4% YoY, +0.9% QoQ), 영업이익 328억원(+68.8% YoY, -16.9% QoQ, OPM 11.3%)으로 시장기대치(321억원) 부합 예상
- 2026년 영업이익 2,030억원(+17.7% YoY) 전망. 1) 인바운드 성장 수혜, 2) 그랜드하얏트 인수 효과를 통한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4,000원 유지

[미디어/엔터/레저] 김유혁

통신

1월 성과 분석

- 1월 통신 업종은 8.3% 상승했으나 코스피 수익률 대비로는 8.2% 하회함. 해킹 이슈 관련 악재가 소진되며 12월 대비 주가 반등 폭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SK텔레콤은 14% 상승하며 업종 내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으며, 지난해 해킹에 따른 가입자 이탈 및 실적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 기대감과 최근 경쟁사 위약금 면제 기간으로 인한 가입자 회복세, 엔트로픽 지분가치 부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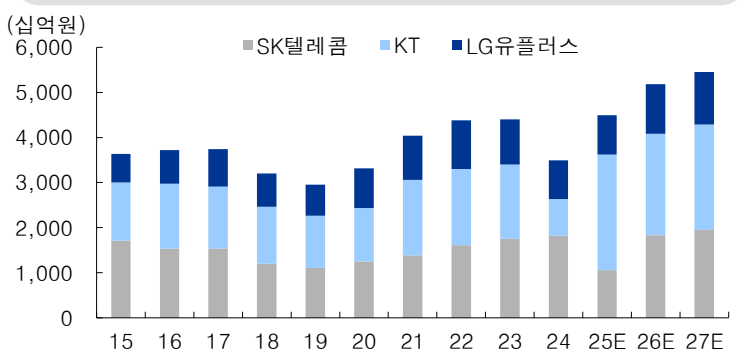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2026년,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레벨업 구간 진입

- 2025년 해킹 이슈를 뒤로하고, 올해 통신 3사 합산 매출은 61.7조원(+1.2% YoY), 영업이익은 5.2조원(+15.4% YoY)으로 개선될 전망
- 2024~25년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해킹 사후 비용 등으로 합산 영업이익이 2022~23년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부터 영업이익의 구조적 도약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주: 2025~27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당사 기준임
자료: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IBK투자증권

통신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 해킹 관련 비용의 실적 반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시장은 해당 이슈를 이미 일단락된 리스크로 인식하는 분위기임. 작년은 해킹, 희망퇴직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올해는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해킹 이슈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6G 상용화가 예상되는 2030년까지 CAPEX 축소 기조가 지속될 전망
- 5G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일부 AI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향후 5년간 통신사들의 대규모 설비투자 유인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잉여현금흐름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2월 Top Picks

SK텔레콤

- 가입자 감소 영향과 희망퇴직 비용 반영 등으로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0% 줄고, 컨센서스를 42% 하회할 전망
- 4Q25 실적부진 및 배당 미실시 우려는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의견이며, 올해는 가입자 회복 및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이 74%(YoY) 개선될 전망

LG유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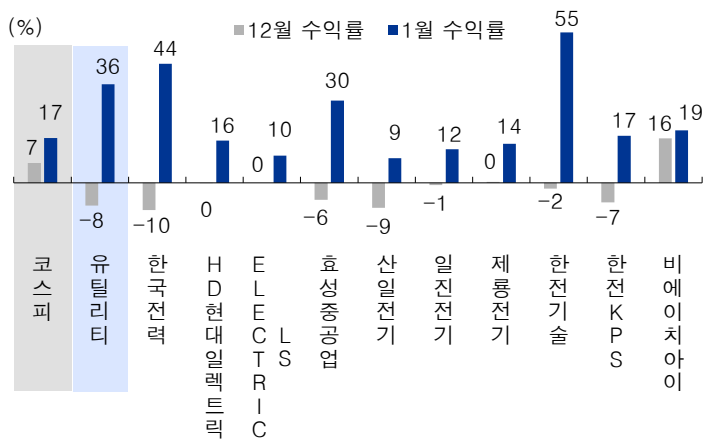
- 연말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상향으로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33% 하회할 전망
- 올해는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 인건비 절감 효과, 데이터센터 관련 실적 확대로 영업이익이 1조 1,057억원 (+26.3% YoY)로 성장할 전망

[통신/유틸리티/음식료] 김태현

유틸리티

1월 성과 분석

- 1월 유틸리티 업종은 36.3%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9.8% 상회함.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과 국내 원전 정책 강화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조정을 겪었던 전력기기 업종에도 매수세가 유입됨
- 한국전력(+44%)을 비롯해 한전기술, 한전KPS, 비에이치아이 등 원전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고, 전력기기 내에서는 효성중공업(+30%)이 강한 흐름을 기록함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원전 정책 강화 기대감

- 최근 원전 관련주 주가 상승은 미국 원전 협력 기대감보다는 국내 원전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그간 현 정부의 전력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확대하되 원전은 보조적·안정적 전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였으나, 최근 이 대통령이 원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부각됨
-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신규 건설 찬성 비율도 70%에 달했음
- 이에 따라 전력 정책 내 원전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 SMR 1기 건설 계획이 12차 계획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유틸리티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1월 2월 3월

- 1월 중 국내외 원전 모멘텀이 단기간에 강하게 반영된 만큼, 2월에는 원전 관련주의 주가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특히 한국전력은 2024~25년 전기요금 인상 효과로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있었으나, 2024년 10월 상업용 요금 10% 인상 이후 요금 동결이 이어지며 올해 영업이익 증가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임
- 이에 2월에는 원전보다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 효성중공업은 4Q25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도 초고압 변압기·차단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실적 고성장 흐름이 이어질 전망. LS ELECTRIC은 4Q25 실적은 부진하겠으나, 올해는 초고압 변압기 증설 효과가 반영되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

2월 Top Picks

효성중공업

- 2025년 4분기 중공업 실적 성장에 기인, 영업이익이 2,248억원 (+70.0% YoY)으로 컨센서스(2,041억원)를 10% 상회할 전망
- 올해부터 관세 비용은 고객사의 차기 매출 발생 시점에 전가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며, 2029년 납품 예정 물량에 대한 수주가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 실적 가시성도 높아 보임

산일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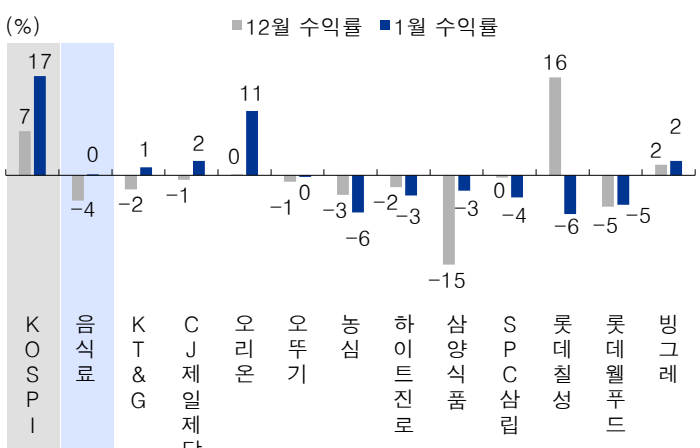
- 2025년 4분기 신재생 및 데이터센터향 특수 변압기 판매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0%(YoY), 47%(YoY) 개선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
- 고객사와 관세 분담에 대한 협의가 1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며 작년 부진했던 송배전 변압기 판매 실적도 고객사 재고 소진으로 회복되는 모습 기대
-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8%, 42% 개선 전망

[통신/유틸리티/음식료] 김태현

음식료

1월 성과 분석

- 1월 음식료 업종은 0.2% 소폭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6.4% 크게 하회함. 반도체·로봇 등 성장주 중심의 투자심리 쏠림과 내수 부진 흐름이 지속되며, 음식료 업종의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짐
- 오리온이 11% 상승하며 선방했으나,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함. 특히 해외 모멘텀이 큰 라면 업체들마저 주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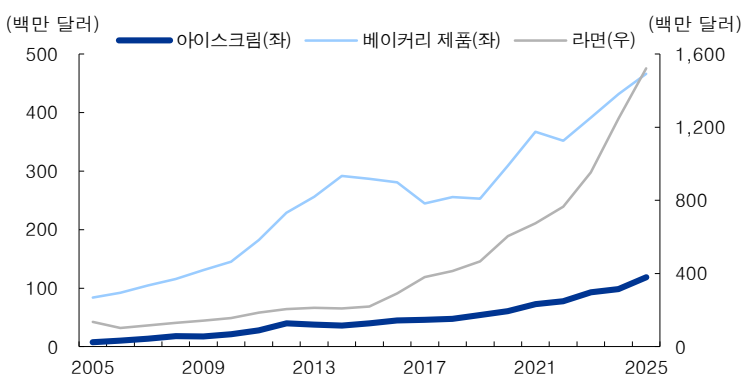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2025년에도 주요 품목 최대 수출액 경신

- 2025년 라면 수출액은 1,521백만 달러(+21.8 YoY), 아이스크림은 119백만 달러(+20.6 YoY), 베이커리 제품 466백만 달러(+7.9 YoY)를 기록
- 정부는 2030 K-푸드 수출 목표를 210억불(약 31조원)로 설정하고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음식료 업종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판단됨

라면,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제품 수출 추이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음식료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 내부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베트남 등 주요 수출 시장의 소비 회복이 지연되며, 업종 전반의 4분기 실적기대감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판단됨
- 더욱이 음식료 업종의 12개월 forward PER은 12.1배로 코스피(10.5배) 대비 약 15%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평가 국면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 개선 여력은 크지 않으나, 2월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경우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업종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개별 종목 중에서는 KT&G가 4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되며, 롯데웰푸드는 원가 하락 효과에 따른 분기별 이익 개선 흐름이 기대됨

2월 Top Picks

KT&G

- 2025년 4분기는 시장 내 재고 조정 영향으로 담배 판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부문의 실적 성장으로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
- 2026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 150억원(+6.5% YoY), 1조 4,581억원(+8.4% YoY)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여지가 크며, 니코틴 파우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성장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전망

롯데웰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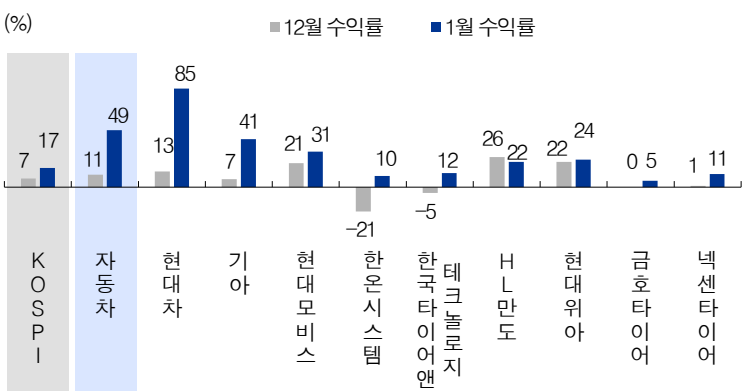
-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92억원으로 흑자전환 예상되나 연말 원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컨센서스(215억원)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올해 1분기부터 코코아 투입 원가 하락 본격화로 2026년 영업이익은 62.0%(YoY) 개선될 전망

[통신/유틸리티/음식료] 김태현

자동차

1월 성과 분석

- 1월 자동차 업종은 +49.3% 상승. 코스피 수익률 대비 +32.8%p 상회
- CES 2026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아웃퍼폼
- 휴머노이드와 로봇에 대한 상승인 만큼, 기존 레거시 부품 업체들의 상승률은 다소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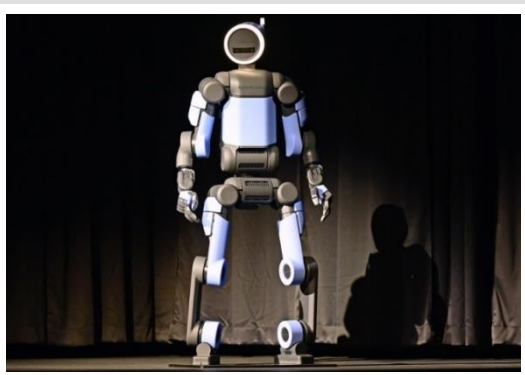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개화

- 2026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험실에서 생산공장이나 가정으로 투입되는 시작점이 될 전망
- 테슬라: 26년 초 휴머노이드 3세대 '옵티머스' 공개 계정, 26년 말 대량 양산 계획이며, 연간 100만대 생산 목표
- 현대차: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실물 공개, 2028년 연간 3만대 양산 체제 목표

CES 2026,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공개



자료: 현대차, IBK투자증권

[자동차/2차전지] 이현욱

자동차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1월 2월 3월

-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실적 하향 요인이었던 미국발 자동차 상호관세 이슈는 일단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관세 협상을 체결하며, EU, 일본, 한국 모두 15%로 동일해짐
- 관세율 인하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 각각 관세 영향이 2.1조원, 1.6조원 감소하여 합산 3.7조원이 감소할 예정
- 2026년 자동차 시장의 중요 관전 포인트는 변화 중
  내연기관 시대: 엔진 마력, 차량 판매량, 관세 →
  전기차 시대: 연산력, 스마트카, 자율주행, 로봇 등
- 2025년 1월 CES에서 현대차그룹은 총 7개의 부스를 배치, 로보틱스(휴머노이드),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성장전략을 공개, 실제 로봇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 부품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주목

2월 Top Picks

현대차

- 휴머노이드 산업을, Physical AI 기반의 핵심 성장축으로 격상, 로보틱스/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을 아우르는 그룹 차원의 전략으로 제시
- CES 2026 전시의 핵심은 1) 아틀라스 양산 로드맵(2028년 연 3만대 체제 구축), 2) 아틀라스 스펙 공개, 3)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 발표로, Physical AI 산업 적용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힘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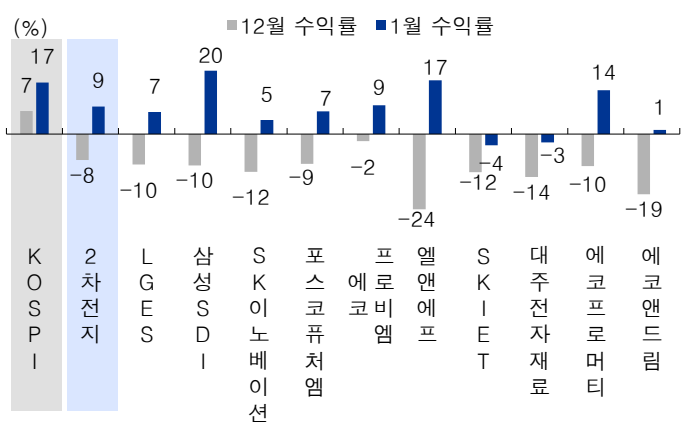
-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액추에이터 공급,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제작 비용의 약 60%를 차지
- 향후 휴머노이드의 가격을 대당 1억원, 공급량을 3만대(아틀라스 2028년 양산 계획)라고 가정했을 때,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 향으로 발생 가능한 매출액은 연 1.5조원 수준

[자동차/2차전지] 이현욱

2차전지

1월 성과 분석

- 1월 2차전지 업종은 +8.8% 상승. 코스피 수익률 대비 -7.7%p 하회
- 유럽 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 미국은 4Q25 부터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좋지 않은 업황 환경은 지속
- EV 수요 둔화가 3Q25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으며, 2차전지 기업들은 3분기 실적발표에서 4Q25도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글로벌 2차전지 Supply Chain Peer Value

- YTD 달러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11.9% 상승, CATL은 -7.4% 하락
- LG에너지솔루션의 EV/EBITDA는 26년 18.4배, 27년 13.3배, 28년 9.1배. CATL 대비 각 년도 프리미엄은 25년 -24.3%, 26년 +61.8%, 27년 +21.0% 수준

업체명	PER (배)			EV/EBITDA (배)		
	26F	27F	28F	26F	27F	28F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112.3	40.9	24.6	18.4	13.3	9.1
삼성SDI	132.8	22.6	17.6	9.1	11.0	8.3
SK이노베이션	371.0	29.9	10.3	11.8	11.0	7.3
CATL	17.8	14.7	13.5	24.3	8.2	7.5
Panasonic	20.1	12.2	10.1	8.8	6.1	5.3
BYD	17.1	14.2	13.9	12.6	4.8	3.5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291.3	127.0	50.0	67.2	37.5	24.9
에코프로비엠	486.9	155.4	73.5	59.8	39.9	30.2
엘앤에프	181.1	42.3	58.6	150.5	23.5	25.7
코스모신소재	N/A	N/A	N/A	N/A	N/A	N/A
Umicore	14.4	13.1	11.9	6.6	6.8	6.2
Sumitomo Metal	25.9	18.8	19.1	10.9	17.8	19.9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1월 21일 기준

2차전지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 2026년 상반기까지 2차전지 업종 부진은 지속될 전망
- 긍정요인: 미국 ESS 발주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미국 ESS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산 ESS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며 사실상 금지, 한국 배터리 기업의 반사수혜가 전망됨
- 부정요인: 2025년 4분기 미국의 EV Tax Credit이 종료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으로 임기 내 EV 시장 성장은 어려울 전망
- 부정요인: 2025년 유럽 전기차 시장이 30%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으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감소하며,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

2월 Top Picks

LG에너지솔루션

- 북미 ESS CAPA는 25년 17GWh에서 26년 30GWh로 증가가 전망되며, 글로벌 ESS CAPA는 26년 기준 42GWh(중국 8GWh, 한국 1GWh, 미국 30GWh, 폴란드 3GWh)
- 다만, 2027~2032년 공급 예정이었던 포드와의 9조원대 계약이 해지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EV 약화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으로, 미국 EV 시장의 성장세가 돌아올 때까지 ESS 시장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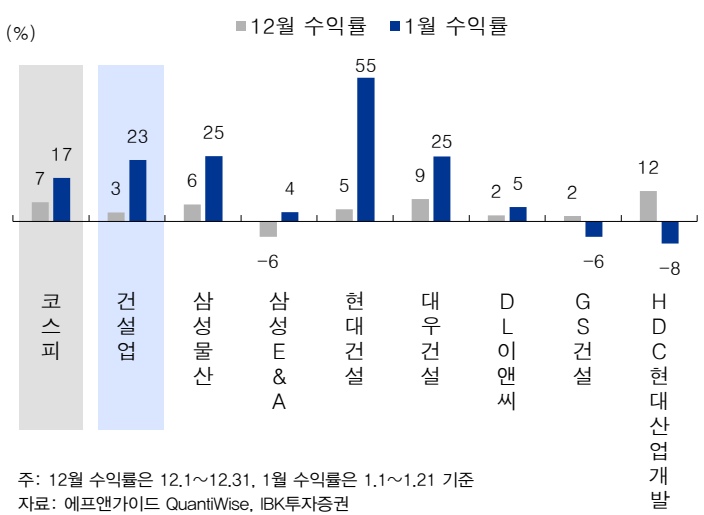
에코프로비엠

- 2025년 주요 전방시장 중 EV 향 실적은 다소 부진할 예정이나, Non-IT, ESS 향 실적의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되는 만큼 최악의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
- 2026년 2분기부터 5.4톤 규모의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가동되면서,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대응하여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됨

건설/부동산

1월 성과 분석

- 1월 건설 업종 수익률은 +23.4%를 기록. 코스피 수익률 대비 6.9%p 상회. 건설업 지수는 해외 건설 수주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
- 종목별로는 현대건설이 +54.8%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 높은 수익률의 원천은 Holtec 펠리세이즈 SMR 프로젝트 발주가 가시권 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Holtec, 팰리세이즈 SMR 건설허가 신청

- 2026년 1월 13일, NRC는 홀텍 자회사가 제출한 2단계 건설허가 신청 중 1단계가 검토 대상에 올라갔음을 공식 발표. 홀텍은 2월 말부터 부지 내 사전 토목 공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LWA(제한적 작업 승인) 신청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LWA 승인 및 3가지 규제 예외 요청
- ▲전체 건설허가 이전에 일부 건설 활동을 허용, ▲ 구체적 자금 조달 출처 명시 필요 X, ▲ LWA 승인 이전에 흙막이벽(굴착 지지 구조물)의 영구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예외 신청에 대해 6개월 내 검토를 요청
- LWA가 승인될 경우, 홀텍은 굴착 구간의 지반 개량 공사와 함께 각 호기별 격납구조물 기초, 2기 공용 원자로 보조건물, 각 호기별 중간건물 기초 설치를 진행할 계획

[건설/부동산] 조정현

건설/부동산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1월 2월 3월

- 1월 건설업종 수익률은 +23.4%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 대비 6.9%p 상회. 이는 단기적인 테마성 반등이라기보다, 원전, 해외 플랜트, 주택 업황 저점 통과 기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판단. 특히 원전 관련 글로벌 뉴스 플로우가 주가 리레이팅의 촉매로 작용
- 2월에는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2026년 가이던스가 제시되는 구간. 이 과정에서 그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던 해외 원전 수주 경로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음
- 단순한 수주 기대를 넘어, 프로젝트 시점, 규모, 참여 형태가 윤곽을 드러낼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2월은 건설업종 전반의 주가 매력도가 한 단계 상향되는 국면으로 진입 전망

2월 Top Picks

현대건설

- 상반기에는 미국 SMR 프로젝트(Holtec 펠리세이즈) EPC 일부 발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사는 미국 대형 원전 및 SMR 시장 확대 국면에 대응 가능한 레퍼런스를 기 확보한 만큼 수주 기대(UAE 바라카, 국내 원전 시공 경험 다수)

삼성E&A

- 동사의 4Q25 연결 실적은 매출액 2.6조 원(YoY +0.2%, QoQ +29.5%), 영업이익 2,258억 원(YoY -23.7%, QoQ +27.9%) 으로 추정.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2,099억 원을 7.7% 상회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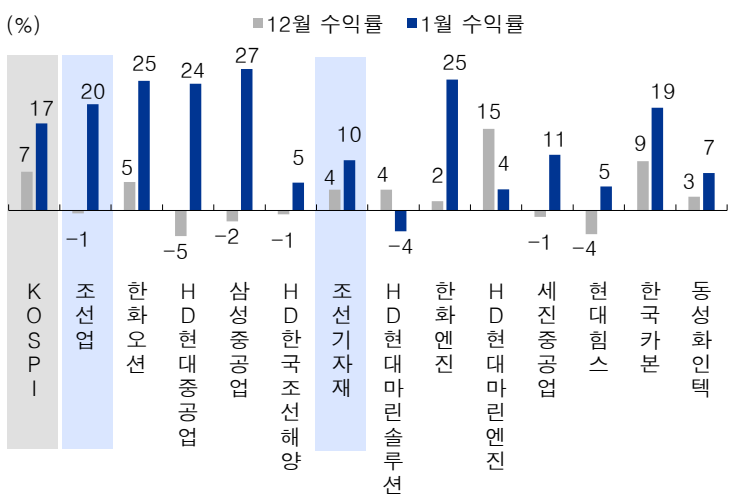
- 그렇게 추정한 이유는 비화공 부문에서 삼성전자 Capex 확대 효과(P4, P5 증설)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화공 부문에서는 파드힐리 프로젝트 공정률이 가속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기 때문

[건설/부동산] 조정현

조선

1월 성과 분석

- 1월 조선 업종은 +20.1% 상승, 코스피 수익률을 +3.6%p 상회함. 1) 베네수엘라 사태 등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 2)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증액 언급, 3) 정체되었던 LNGc 발주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
- 조선기자재 업종은 +9.5% 상승, 코스피 수익률을 -7.0%p 하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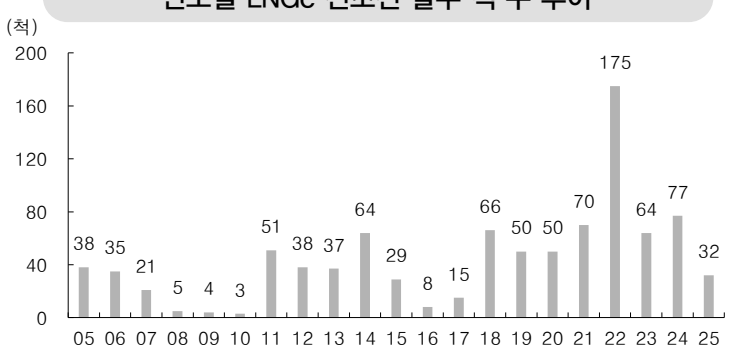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LNGc 발주 재개

- 미국의 중국 제재 리스크로 인해 2025년 LNGc 신조선 발주는 YoY -58% 감소. 그러나 26년 발주 재개 전망
- 프랑스 보냉재 원천 기술 업체 GTT는 2025년 FID(최종투자결정) 완료된 LNG 액화플랜트 프로젝트에서만 150척의 신조 LNGc가 필요하다고 분석. 여기에 카타르 Ph3까지 더해지면 LNGc 건조 슬롯은 높은 확률로 부족할 전망. LNGc 선가 재상승 가능성도 존재

연도별 LNGc 신조선 발주 척 수 추이



자료: Clarksons, IBK투자증권

조선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1월 2월 3월

- 발주: LNGc 발주 재개. 25년 신규 LNGc 발주는 32척으로 YoY -58% 감소. 미국의 중국 제재 리스크로 해운사들의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 그러나 11월 미중 무역합의 이후 LNGc 발주 재개 중. 26년에는 100척 수준의 발주 전망
- 모멘텀: 미국 함정 건조 관련 논의 수준을 넘어 실제 발주, 협력, 투자 등 가시적인 진척 본격화 예상
- 실적: 22년 수주 물량 완전히 해소, 23~24년 수주 물량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 신조선가지수는 23년초 162.2pt에서 24년 9월 189.9pt까지 17% 상승. 상선 부문에서도 여전히 실적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
- 투자전략: 조선업종 비중확대 의견 견지. 발주, 모멘텀, 실적 모두 2026년에도 견조할 것이라 예상

2월 Top Picks

HD현대중공업

- 실적: 1) 상선: 23년 이후 수주한 선박 비중이 70%까지 상승 예상. 카타르 2차 LNGc까지 포함하면 90% 수준까지 상승. 수익성 개선 지속, 2) 엔진: 3Q25에 이미 20% 수익성 달성. 과거 엔진 부문은 30% 이상의 수익성을 달성한 바 있음. 수익성 개선 지속
- 수주: LNGc, VLEC, VLAC 수주 예상
- 모멘텀: 미국 황금함대 관련 협력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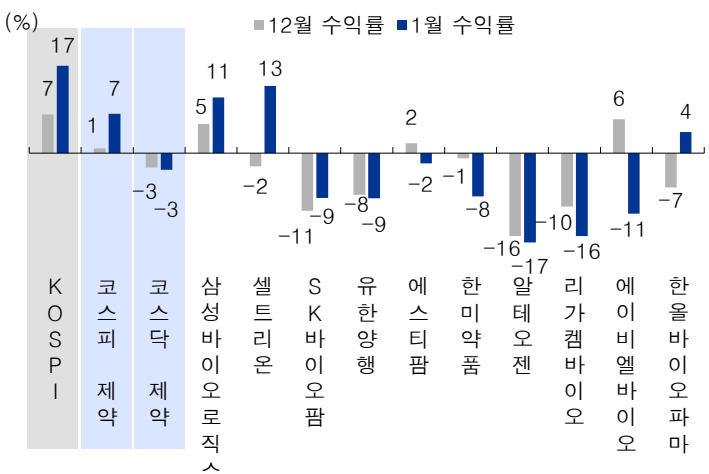
- 실적: 1) 상선: 23년 이후 수주한 고수익성의 LNGc와 컨테이너선 비중이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2) 해양: 고수익성의 FLNG 3기 동시 건조 체제 돌입, 수익성 개선에 기여 예상
- 수주: LNGc, FLNG, 탱커, 셔틀탱커 수주 예상
- 모멘텀: 미국 군수지원함, 상선 관련 협력

[조선/기계] 오지훈

제약/바이오

1월 성과 분석

- 1월 코스피 제약 지수는 7.4%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9.1%p 하회함. 코스닥 제약 지수는 -3.1% 하락하며 코스닥 수익률을 5.9%p 하회함
-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국내 기업의 의미있는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이나 임상 데이터 발표가 부재하며, 사전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했음



주: 12월 수익률은 12.1~12.31, 1월 수익률은 1.1~1.21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월 주요 이슈 & 키워드

1/12~1/1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요 테마는 1) AI 신약 개발, 2) 특허 절벽(Patent Cliff) 과제, 3)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요약됨. 특히,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간 최대 1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AI 신약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하며, AI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될 전망
-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노보 노디스크가 2026년 1월 미국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출시한 가운데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FDA의 승인 시점이 2026년 2분기로 예상됨. 한편, 화이자는 멧세라(Metsera) 인수를 통해 확보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2028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임
- 주요 글로벌 CDMO 기업들의 전략은 1) 신약개발 초기 단계부터 상업화 생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제공, 2) 글로벌 거점 확대, 3) 모달리티 다변화 및 공장 자동화로 요약됨

제약/바이오

2월 전망 및 투자전략

1월 2월 3월

- 알테오젠이 파트너사 머크와의 계약에서 로열티율이 시장 기대치(5%) 대비 낮은 2%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중장기 기대 수익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타남
-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을 근거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해 왔던 시장이, 예상보다 낮은 로열티율을 반영하며 섹터 전반에 밸류에이션 조정을 단기간 내 반영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이는 시장 기대치의 변화에 따른 조정일 뿐, 개별 기업의 사업 펀더멘털이나 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없음.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 절벽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차세대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며, 연내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된 종목 중심으로 기대 요인은 충분하다고 판단

2월 Top Picks

셀트리온

- 4분기 연결 매출액 1조 2,839억 원(+20.7% YoY), 영업이익 4,722억 원(+140.4% YoY)으로 전망.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며 이익률 높아진 것으로 추정
- 2026년 고마진 신제품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2분기부터 미국 현지 일라이 릴리향 CMO 매출이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기대

에스티팜

- 아이오니스는 올레자르센의 Peak Sales 추정치를 기존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상향했으며, 올레자르센은 2026년 중증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동사의 원료 공급 물량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美 생물보안법이 12월 발효됨에 따라 중장기 수혜도 기대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유가증권	계열사	공개매수	IPO	회사채	중대한	M&A
		수량	취득가	취득일	보유여부	발행관련	관계여부	사무취급		지급보증	이해관계	관련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1.01~2025.12.31)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40	92.1
Trading Buy (중립)	9	5.9
중립	3	2
매도	0	0

MEMO

MEMO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	전화	이메일
용대인	전무(부문장)	총괄	6915-5400	daeinyong@ibks.com
이승훈	상무대우(본부장)	AI/인터넷/게임	6915-5680	dozed@ibks.com
투자분석부				
변준호	연구위원	Strategy	6915-5670	ymaezono@ibks.com
정용택	수석 Economist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김인식	연구위원	자산배분/ETF	6915-5472	kds4539@ibks.com
정형주	연구위원	채권/크레딧	6915-5654	hj.jeong@ibks.com
조경진	연구위원	해외주식	6915-5464	ckjins@ibks.com
권순호	연구원	Quant	6915-5667	snowkonn@ibks.com
기간산업분석부				
이동욱	연구위원	에너지/소재	6915-5671	treestump@ibks.com
남성현	연구위원	유통·식자재/지주	6915-5672	rockrole@ibks.com
김유혁	연구위원	미디어/엔터/레저	6915-5673	yuhyuk.kim@ibks.com
이현욱	연구원	자동차/2차전지	6915-5659	hwle1125@ibks.com
오지훈	연구원	조선/기계	6915-5662	jihoonoh@ibks.com
혁신기업분석부				
이건재	연구위원	소재·부품·장비/스몰캡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김운호	연구위원	IT/반도체	6915-5656	unokim88@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음식료/유틸리티/통신	6915-5658	kith0923@ibks.com
정이수	연구위원	제약/바이오	6915-5677	ysjeong306@ibks.com
조정현	연구원	건설/부동산	6915-5660	controlh@ibks.com
강민구	연구원	IT/디스플레이	6915-5473	kmg@ibks.com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지원부 1588-0030, 1544-0050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IBK WM센터 강남센트럴	02) 556-4999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도곡	02) 2057-9300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